“보리수 열매도 따고, 정토선 가풍 느껴요”

고성 서방사, 제11회 고성 보리수축제 개최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 봉행
1, 2부 나눠 다양한 문화행사
등정 스님 “마음 치유 수행을”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토 염불수행과 선수행을 동시에 이어가는 대한불교정토선종이 제11회 고성 보리수축제와 함께 관정대사 다례재를 통한 수행 정신을 알렸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인 경남 고성 서방사(주지 등정)는 5월 29일 제11회 고성보리수축제 및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을 비롯해 제천 통도사 정암 스님, 고성사암연합회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 청수암 진각 스님, 성덕사 도안 스님, 용암사 해공 스님, 관음정사 법경 스님, 지장사 일각 스님, 정월선원 체정 스님, 천비룡사 일선 스님, 성수사 일현 스님 외 정토선종 스님 및 지역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보리수축제를 주관한 이정옥 고성보리수농원 대표, 최진석 신도회장, 오은겸 상리면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도 참여했다.

전체 행사는 1부 관정대사 15주기 다례재와 2부 보리수축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다례재는 개회, 삼귀의, 정토선 염불, 반야심경, 봉행사(정토선종 총무원장 등정 스님), 법어(종정 정암 스님), 정토선 시식, 축원 및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보리수축제는 식전행사로 고성지부 아랑고고장구 공연과 고성연합회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진행됐으며, 본행사에서 개회사, 이정옥 대표 대회사, 내빈 소개, 최진석 신도회장 인사말, 고성사암연합회장 수운 스님 인사말, 오은경 고성 상리면장 인사말, 공양, 보리수 따기 체험 및 작은 음악회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은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부처님은 중생들을 참다운 행복으로 이끌고, 극락에서 세세생생 성불하도록 인연을 지어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 관정 대사 가르침으로 깨우치고, 마음 성찰을 통해 선과 정을 동시에 수행하자. 진심으로 참선하는 것이 정토선이다”고 당부했다.



경남 고성보리수축제에서 장구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제천 통도사 정암 스님은 법문에서 “극락세계는 사부대중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 관정 스님은 아미타불 명호를 그대로 하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며 쉽고 짧은 염불행을 전했다”며 “염호하는 마음에 집중하여 일심으로 우주 안의 가장 큰 보물을 갖자”고 서원했다.

이정옥 보리수축제 농장주 대표는 “상리면의 자랑스러운 보리수 축제가 고성군의 으뜸이 되는 축제가 됐다. 새콤달콤한 보리수가 심혈관질환 및 기관지 등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사암연합회 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은 “고성 유일의 보리수 축제가 많은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 도량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한편, 서방사는 고성보리수농원과 함께 2009년부터 보리수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지역은 연간 7~10t가량의 보리수가 생산되는 국내 대표 특산지다.

고운사, “스님 자산 유증시 승려복지 활용”

5월 27일 제72차 교구종회서 결의

의성 고운사는 5월 27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2차 교구종회를 열고 ‘유언장 작성 시 고운사로 유증하는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의성 고운사가 결의한 내용은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면 입적 후 남은 자산을 고운사로 유증하여 사용토록 하는 취지다. 이날 고운사 대중들은 종회의원 선거 및 본사 주지 선거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을 승려복지 기금으로 내놓자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어 교구 종회 후 고운사는 200여 대중이 모인 가운데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회에는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으며 대중들은 청정한 계율로 승풍 진작과 수행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종합복지관, 소방안전교육 실시

생활지원사 어르신 안전지킴 위한 초기대응능력 향상 기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이 5월 2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김제시에서 일가족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과 기초적 생활을 살피는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고창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 방법의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 낙상사고 방지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추가로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5.18민중항쟁 상처 치유 북콘서트 눈길

5월 21일 전일빌딩 다목적강당서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5월 21일 5.18 치유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무등)는 지난 5월 21일 전일빌딩 다목적 강당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오월시민군 이정모’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책은 지역 불교활동가인 이해모(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해모 사무총장은 이정모 열사의 동생이다.

이정모 열사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열사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4년만인 1984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행사는 저자 이해모의 사인회를 시작으로 넋모심 퍼포먼스(이당금, 박성순, 송한울), 인사말(무등 스님), 덕담(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헌정시 낭송(김희용), 저서 소개영상, 저자와의 대담(정봉남, 이해모, 이상호), 헌정곡 공연(주하주), 해원무(김연우)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무일선원 관세음보살 점안

5월 29일 1000여 대중 운집



한국불교대학은 감포도량 무일선원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열었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5월 29일 감포도량 무일선원 주불 앞에서 대성자모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구큰절, 감포,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도량 신도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에서 우학 스님이 직접 사경한 〈금강경〉 사본과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유튜브 불교대학 원고와 무일생활법문 등을 복장물에 담아 의미를 더했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을 모신 인연이 세세생생 인연이 되어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세계 어디에서든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 도량이 유튜브불교대학의 원찰이라고 여기시길 바란다. 한 번 정도 오셔서 대성자모관세음보살의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은 6월 7일 전 교육강좌를 동시 개강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광호 원장, 동국대 와이즈캠에 기부

5월 30일 5천만 원 전달식
화엄법계광장 조성사업 사용

동국대 WISE(와이즈)캠퍼스 화엄법계광장 조성에 불자 독지가가 기금을 쾌척했다.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은 5월 30일 동국대 WISE(와이즈)캠퍼스에 화엄법계광장 조성사업 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광호 원장은 동국대 WISE캠퍼스가 화엄법계광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받자마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일에 써 달라”며 기금을 기탁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100주년기념관 앞 광장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새기고, 학생들의 체험, 휴식, 기부자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WISE캠퍼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대학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뜻을 표했다.

김광호 원장은 WISE캠퍼스 태영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도서관 리모델링기금, 선센터기금 등 총 1억 3000만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